

일개 한방병원 내원환자 체질병증 연구보고

권은미 · 김선형 · 안지혜 · 송안나 · 김달래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about Constitutional Disease Syndromes at a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Eun-Mi Kwon, Sun-Hyung Kim, Ji-Hye An, An-Na Song, Dal-Rae Kim^{*}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dong

1.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disease syndromes at a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in Seoul.

2.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1354 subjects who have received prescriptions and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09 at a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were reviewed. General factors and the frequency of the prescription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3. Results

- 1) Among the 1354 subjects, 562(41.5%) persons were males and 792(58.5%) females. 614(45.3%) persons were Soeumin, 369(27.3%) Soyangin, 364(26.9%) Taeumin, and 7(0.5%) Taeyangin.
- 2) The frequencies of the prescriptions of 14 constitutional disease syndromes were compared. Taeum Syndrome, Esophagus Cold Syndrome and Yin Deficiency Tidal fever Syndrome show the high frequencies among 14 disease syndromes. Chest Heat Syndrome, Deficiency of Yin and Blood syndrome and Soeum Syndrome show the low frequencies among 14 disease syndromes. Interior disease(63.4%) was higher than exterior disease(36.6%) and mild disease(61.8%) was higher than severe disease(38.2%).
- 3) Among all constitutional prescriptions, Jowyiseungchung-tang was the most common and next rankings were Gupoong-tang and Dokhwaljihwang-tang in turns.

4. Conclusions

From all these considerations, it would seem that Taeum Syndrome in Soeumin, Esophagus Cold Syndrome in Taeumin and Yin Deficiency Tidal fever Syndrome in Soyangin show the high frequencies in a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in Seoul. Large-scale epidemiologic study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ay be needed on various ways and places.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Constitutional Disease Syndromes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10027739)

* 접수일 2011년 11월 15일; 심사일 2011년 11월 01일;
승인일 2011년 11월 05일

• 교신저자 : 김달래
149 Sangil-dong, Gangdong-gu, Seoul 134-727, Republic of Korea,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dong,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Tel : +82-2-440-7139 Fax : +82-2-440-7143
E-mail : dallkim@yahoo.co.kr

I. 서론

질병에 있어서 유병율의 역학적 분포는 질병을 관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생물학에서도 동식물의 역학적인 분포는 그 개체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상체질의학은 1894년 동무 이제마에 창시된 의학으로 사람을 4개의 체질로 나누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학이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사람을 장부대소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체질을 타고 태어나며 체질적 분포는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비율이 각각 30% 50% 20%¹⁾ 라고 말한 것에 있다.¹ 이것은 이제마가 주로 진료를 했던 함흥지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것이 한국인의 전체적인 체질분포인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분포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의 체질 분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체질의 병증별 분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상체질의학이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적용되면서 체질병증에 따라 사상체질처방을 사용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에 대한 역학적 보고는 많지 않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²은 한의원에 2년간 내원한 13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³는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김⁴은 태음인조열병증을 중심으로, 조⁵는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적 분포를 보고한 바 있다. 체질에 대한 분포는 특정 질병이나 경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함께 보고되고 있는 기초 자료를 통해서 추측되기도 한다.

저자는 서울 소재 일개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사상체질처방 빈도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 사상인 분포 및 체질 병증의 역학적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단일 한방병원의 보고이지만 2년간 내원한 환자들 중 사상체질의 침약을 사용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대상자의 수가 통계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내원환자 중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진찰로 체질을 진단 받고 체질처방 침약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1354명의 명단을 얻었다. 상담 및 침구치료만을 시행한자와 체질 처방이 아닌 처방을 받은 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총 135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및 처방의 빈도, 처방을 토대로 한 사상인별 표리순역의 병증 분류를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인구학적 특징 : 환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분포를 조사하였다.
- 2) 체질별 분포 : 체질별로 남녀 및 전체 대상자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 3) 체질별 병증분포 : 대상 환자에게 투여된 침약 처방에 따라 체질과 체질병증을 분류하였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최근의 처방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4) 전체 병증 분포 : 전체 14개의 병증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5) 표증과 리증의 분포 : 표증과 리증의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6) 순증과 역증의 분포 : 순증과 역증의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7) 다빈도 처방 : 처방 빈도(건수)가 많은 처방, 실제 사용량(침수)이 많은 처방의 순위를 살펴보았다.

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17-1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一縣萬人數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絶少 一縣中 或三四人十餘人而已.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otal Subjects

Age(yr)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Total
Male(N)	171	71	50	93	57	56	41	17	5	1	562
(%)	12.6	5.2	3.7	6.9	4.2	4.1	3.0	1.3	0.4	0.1	41.5
Female(N)	105	65	106	185	108	100	87	29	7	0	792
(%)	7.8	4.8	7.8	13.6	8.0	7.4	6.5	2.1	0.5	0	58.5
Total(N)	276	136	156	278	165	156	128	46	12	1	1354
(%)	20.4	10.0	11.5	20.5	12.2	11.5	9.5	3.4	0.9	0.1	100

Table 2. Crosstabulation of Gender and Sasang Constitution

	Total	Constitution				P-value [*]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Male	562(41.5) [*]	3(0.2)	62(4.6)	214(15.8)	283(20.9)	0.000
Female	792(58.5)	4(0.3)	307(22.7)	150(11.1)	331(24.4)	
Total	1354(100)	7(0.5)	369(27.3)	364(26.9)	614(45.3)	

^{*} Number of subjects (% within group)
^{*} P-value by χ^2 -test

8) 60첩 이상 처방된 480건에 대한 병증분포 : 기간내에서 한 대상자가 60첩 이상의 체질 처방을 적용한 경우만을 모아서, 처방에 따라 체질병증을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모든 결과는 p<.05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가장 많았고 태양인이 가장 적었다. 남자 여자 모두에게서 소음인이 가장 많았고, 태양인을 제외하면 남자에서는 소양인이 가장 적었으며, 여자에게는 태음인이 가장 적었다.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Table 2)

3. 체질별 병증 분포

- 1) 전체 대상자는 소양인 체질에서 음허오열이 44.7%로 가장 많고 흥격열증이 43%로 가장 적었다. 태음인 체질에서 위완한증이 51.1%로 가장 많고 음혈모갈이 0%로 가장 적었다. 소음인 체질에서 태음증이 87.9%로 가장 많고 소음증이 1%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Table 3)
- 2) 남자는 소양인 체질에서 망음이 50%로 가장 많고 흥격열증이 3.3%로 가장 적었다. 태음인 체질에서 위완한증이 50.5%로 가장 많고 음혈모갈이 0%로 가장 적었다. 소음인 체질에서 태음증이 90.1%로 가장 많고 소음증이 0.4%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Table 3)
- 3) 여자는 소양인 체질에서 음허오열이 47.9%로 가장 많고 흥격열증이 4.5%로 가장 적었다. 태음인 체질에서 위완한증이 52%로 가장 많고 음혈모갈이 0%로 가장 적었다. 소음인 체질에서 태음증이 86.1%

Ⅲ. 연구 결과

1. 인구학적 특징

1354명 중 남자는 총 562명(41.5%), 여자는 792명(58.5%)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외래환자의 각 연령군별 빈도분포를 보면 30대 278명(20.5%), 10세 이하가 276명(20.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은 59명(4.4%)에 해당되었다.(Table 1)

2. 체질별 분포

체질 처방이 적용된 대상자 1354명 중 소음인은 614명(45.3%), 소양인은 369명(27.3%), 태음인은 364명(26.9%)이었고, 태양인은 7명(0.5%)이었다. 소음인

Table 3. Frequency of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s for Total 1354 Subjects

Constitutional Disease Syndrome		Male	Female	Total	P-value [‡]
Taeyangin	Hae Yuk Synd [*]	3(100) [†]	1(25.0)	4(57.1)	0.000
	Yul Gyuk Synd	0(0)	3(75.0)	3(42.9)	
	total	3(100)	4(100)	7(100)	
Soyangin	Soyang Wind Injury Synd	11(17.7)	43(14.0)	54(14.6)	0.000
	Yin Collapse Synd	31(50.0)	103(33.6)	134(36.4)	
	Chest Heat Synd	2(3.3)	14(4.5)	16(4.3)	
	Yin Deficiency Tidal fever Synd	18(29.0)	147(47.9)	165(44.7)	
	total	62(100)	307(100)	369(100)	
Taeummin	Taeyang Extreme Cold Synd	23(10.7)	26(17.3)	49(13.5)	0.000
	Esophagus Cold Synd	108(50.5)	78(52.0)	186(51.1)	
	Liver Heat Synd	83(38.8)	46(30.7)	129(35.4)	
	Dry-Heat Synd	0(0)	0(0)	0(0)	
	total	214(100)	150(100)	364(100)	
Soeumin	Manic Synd	13(4.6)	32(9.7)	45(7.3)	0.000
	Yang Collpase Synd	14(4.9)	9(2.7)	23(3.8)	
	Tae-eum Synd	255(90.1)	285(86.1)	540(87.9)	
	Soeum Synd	1(0.4)	5(1.5)	6(1.0)	
	total	283(100)	331(100)	614(100)	

* Synd : Syndrome

† Number of subjects (% within group)

‡ P-value by χ^2 -test

Table 4. Frequency of Exterior and Interior Disease

Exterior Disease		Subtotal	Interior Disease		p-value [‡]
Tae yangin	Hae Yuk Synd [*] 4(0.3) [†]	4(0.3)	Yul Gyuk Synd 3(0.2)	3(0.2)	0.000
	Soyang Wind Injury Synd 54(4.0)	188(13.9)	Chest Heat Synd 16(1.2)	181(13.4)	
Yin Collapse Synd 134(9.9)	Yin Deficiency Tidal fever Synd 165(12.2)				
Taeummin	Taeyang Extreme Cold Synd 49(3.6)	235(17.4)	Liver Heat Synd 129(9.5)	129(9.5)	
	Esophagus Cold Synd 186(13.8)		Deficiency of Yin and Blood Synd 0(0)		
Soeumin	Manic Synd 45(3.3)	68(5.0)	Tae-eum Synd 540(39.9)	546(40.3)	
	Yang Collpase Synd 23(1.7)		Soeum Synd 6(0.4)		
Total		495(36.6)		859(63.4)	

* Synd : Syndrome

† Number of subjects (% within group)

‡ P-value by χ^2 -test

로 가장 많고 소음증이 1.5%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Table 3)

4. 14개 병증 분포

1) 전체와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많았던 병증은 소음인 태음증이었고, 두 번째로 많았던 병증은 태음인

위완한증이었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Table 3)

2) 태음인 음혈모갈, 소음인 소음증, 태양인은 내원 환자 수가 적어 전체 대상자 1354명 중 1% 미만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5. Frequency of Mild and Severe Condition

Mild Condition		Subtotal	Severe Condition		Subtotal	p-value [‡]
Taeyangin	Hae Yuk Synd [*] 4(0.3) [†]	4(0.3)	Yul Gyuk Synd 3(0.2)		3(0.2)	0.000
Soyangin	Soyang Wind Injury Synd 54(4.0) Chest Heat Synd 16(1.2)	70(5.2)	Yin Collapse Synd 134(9.9) Yin Deficiency Tidal fever Synd 165(12.2)		299(22.1)	
Taeumin	Taeyang Extreme Cold Synd 49(3.6) Liver Heat Synd 129(9.5)	178(13.1)	Esophagus Cold Synd 186(13.8) Deficiency of Yin and Blood Synd 0(0)		186(13.8)	
Soeumin	Manic Synd 45(3.3) Tae-eum Synd 540(39.9)	585(43.2)	Yang Collpase Synd 23(1.7) Soeum Synd 6(0.4)		29(2.1)	
Total		837(61.8)			517(38.2)	

^{*} Synd : Syndrome

[†] Number of subjects (% within group)

[‡] P-value by χ^2 -test

5. 표증과 리증의 분포

전체 대상자 1354명 중 표증은 495명(36.6%), 리증은 859명(63.4%)으로 리증이 표증보다 많았고 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각 체질별로 살펴보면, 태양인과 태음인에서는 표증이 많았고, 소양인과 소음인에서는 리증이 많았다.(Table 4)

6. 순증과 역증의 분포

1354명중 순증은 837명(61.8%), 역증은 517명(38.2%)로 순증이 역증보다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각 체질별로 살펴보면, 태양인과 소음인은 순증이 많았고, 소양인과 태음인은 역증이 많았다.(Table 5)

7. 처방 건수가 높은 처방, 처방 첩수가 높은 처방 순위

상기 조사기간 내에서 처방 건수 6185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조사하였다. 처방 건수가 높은 처방 10위는 각각 조위승청탕 856건, 독활지황탕 632건, 거풍탕 630건, 향사육군자탕 604건, 형방사백산 446건, 조리폐원탕 325건, 갈근해기탕 317건, 곽향정기산 267건, 청심연자탕 254건, 형방쇄독산 209건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처방 첩수가 높은 처방을 합산하여 비교하더라도 상위 10가지 처방명은 동일하였다.(Table 6) 빈용 처방 상위 10위 내에서 태음인 처방이 4건, 소음인 처방이 3건, 소양인 처방이 3건으로 태양인을 제외하고는 체질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Fig. 1)

Table 6. Frequency and Quantity of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Prescriptions

Herbal Prescriptions	Frequency	Quantity
Jowyseungchung-tang	856(13.8) [*]	21695(15.2) [†]
Gupoong-tang	630(10.2)	16730(11.7)
Dokhwajihwang-tang	632(10.2)	15140(10.6)
Hyangsayukgunja-tang	604(9.8)	14221(10.0)
Hyungbangaesabak-san	446(7.2)	9483(6.7)
Joripewon-tang	325(7.2)	7777(5.5)
Kalkeunhaegi-tang	317(5.1)	7159(5.0)
Kwakhyangchungki-san	267(4.3)	6457(4.5)
Hyungbangpaedok-san	209(3.4)	4621(3.2)
Chungshimyunja-tang	254(4.1)	4415(3.1)
Jukbaekhaohkwanjoong-tang	192(3.1)	4848(3.4)
Hyansayangwi-tang	140(2.3)	3553(2.5)
Handayulso-tang	138(2.2)	3181(2.2)
Taeumjowyi-tang	103(1.7)	2406(1.7)
Baekhaohyijung-tang	118(1.9)	2360(1.7)
Yuldahanso-tang	105(1.7)	2149(1.5)
Palmulkeunja-tang	73(1.2)	1480(1.0)
Koongkwihyangso-san	82(1.3)	1443(1.0)
Seungyangyikki-tang	60(1.0)	1398(1.0)
Sojadodam-tang	49(0.8)	1260(0.9)
Yanggyuksanhwa-tang	45(0.7)	968(0.7)
hyungbangdojuk-san	40(0.7)	921(0.7)
Shipemijihwang-tang	31(0.5)	855(0.6)
Kaejibanhasaengkang-tang	32(0.5)	783(0.6)
Mahwhangbalpyo-tang	63(1.0)	744(0.5)
Hyungbangjihwang-tang	33(0.5)	583(0.4)
Gunggwichongsoyijungtang	43(0.7)	574(0.4)
Yangdokbaekho-tang	15(0.2)	441(0.3)
Mahwangjungchun-tang	27(0.4)	410(0.3)

Bojoongyikki-tang	20(0.3)	397(0.3)
Mahwangjungtong-tang	25(0.4)	396(0.3)
Shipemikwanjoong-tang	21(0.3)	374(0.3)
Baekhaohbujayijung-tang	13(0.2)	369(0.3)
Ogapijangchuk-tang	13(0.2)	345(0.2)
Sookjihwangkosam-tang	13(0.2)	303(0.2)
Mihudengshikchang-tang	10(0.1)	300(0.2)
Kalkeunnabokja-tang	18(0.3)	273(0.2)
Hwangkikaeji-tang	17(0.3)	270(0.2)
Chungshimyulda-tang	7(0.1)	210(0.2)
Kwankaebujayijung-tang	14(0.2)	201(0.1)
Nokyongdaebo-tang	8(0.1)	180(0.1)
Kunyooljejo-tang	9(0.2)	162(0.1)
Juhryungchajunja-tang	6(0.1)	156(0.1)
Chunkoongkaeji-tang	17(0.3)	136(0.1)
Seungyangyikkibuja-tang	10(0.2)	110(0.1)
Chungpaesakan-tang	3(0.1)	102(0.1)
Gamihyungbangpaedok-san	23(0.4)	97(0.1)
Jiwhangbaekho-tang	1(0.02)	21(0.01)
Sunghyangjungki-san	3(0.1)	14(0.01)
Kaebukwakjinyijung-tang	4(0.1)	13(0.01)
Hwalsukkosam-tang	1(0.02)	3(0.00)
Total	6185(100)	142487(100)

* Number of frequency (% within group)

† Number of packs (% within group)

8. 60첩 이상을 처방 받은 480명을 대상으로 한 체질병증 분포

전체 480명 중에서 소양인 체질은 음허오열이 가장 많았고, 흥격열증이 가장 적었다. 태음인 체질에서는 위완환증이 가장 많았고, 음혈모갈증이 가장 적었다. 소음인 체질에서는 태음증이 가장 많았고, 소음증이

가장 적었다. (Tabl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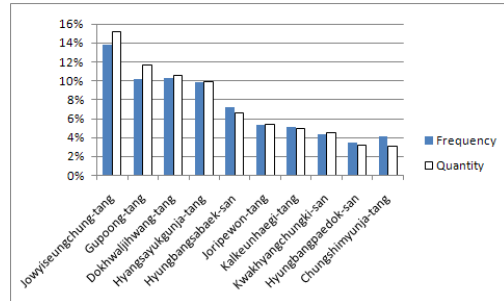


Fig. 1. Frequency and Quantity of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Prescriptions.

IV. 고찰

체질의학은 치료의학인 동시에 양생과 섭생을 중 요시하는 예방의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이나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체질 의학적 병증 분포에 대해 대규모의 다양한 역학조사 들이 있다면 이는 학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일개 한방병원 사상체 질과에 내원한 환자의 체질병증 분포를 분석해 보고 자 한다.

Table 7. Frequency of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s for 480 Subjects

		Constitutional Disease Syndrome		Subtotal	Total
Taeyangin	ED [*]	Hae Yuk Synd [†]	1(0.2) [§]	-	1(0.2)
	ID [†]	-	-	Yul Gyuk Synd 2(0.4)	2(0.4)
Soyangin	ED	Soyang Wind Injury Synd	16(3.3)	Yin Collapse Synd 28(5.9)	44(9.2)
	ID	Chest Heat Synd	7(1.5)	Yin Deficiency Tidal fever Synd 60(12.5)	67(14.0)
Taeumin	ED	Taeyang Extreme Cold Synd	3(0.6)	Esophagus Cold Synd 121(25.2)	124(25.8)
	ID	Liver Heat Synd	47(9.8)	Deficiency of Yin and Blood Synd 0(0)	47(9.8)
Soeumin	ED	Manic Synd	6(1.2)	Yang Collpase Synd 12(2.5)	18(3.7)
	ID	Tae-eum Synd	172(35.8)	Soeum Synd 5(1.1)	177(36.9)
Total			252(52.5)	228(47.5)	480(100)

* ED:Exterior Disease; † ID:Interior Disease

‡ Synd : Syndrome

§ Number of subjects (% within group)

1. 사상인 분포에 대한 분석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각 체질별 분포를 이미 언급해 놓았다.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에서는 북도산간과 남도 평야에서의 비율을 달리해서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비율을

5:3:2, 4:4:2 라고 언급해 놓았으며²⁾,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는 이를 지역의 구분 없이 3:5:2로 언급해 놓았다.¹ 본 연구에서 내원환자의 체질별 분포는 전체 대상자 혹은 남녀로 성별을 나누어 보더라도 소음인이 가장 많았다. 최근에 발표된 보고들을 살펴 보더라도 양은 원주지역의 코호트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를, 신⁸⁾은 대규모의 미국인을, 박⁹⁾은 대상자 수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임의추출하여 보았는데, 이 연구들 모두에서 소음인이 가장 많았던 결과는 없었다. 이처럼 문헌 및 보고마다 체질별 분포의 차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대별, 지역별, 진료원장의 체질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²

東武公이 문헌에서 언급했던 사상인 분포 비율에 대해서는 통계적 자료보다는 변증에 도움을 주고자 제시한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³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에 대한 선택 비틀림(selection bias) 때문이다. 대상자의 선택이 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때 시대, 지역, 진료원장의 체질, 진료기관의 규모, 질병의 경중 등이 모두는 체질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인 근거수준(level of evide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참값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과 소음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사상인 분포라기보다는 본 병원의 주된 환자군이 냉증 환자인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의사상대전』에서는 저자가 경험

한 환자들의 체질 비율을 소음인 65-70%, 태음인 25-30% 소양인 5-10%로 보고하면서 소음인의 분포가 높은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태음인의 환자수가 적은 것은 가벼운 병환으로는 의원을 찾지 않는 성질의 소유자이고 소음인은 동시에 비교적 병이 많이 나는 체질자이며 소양인은 본래 그 수가 적은 것인지 병이 갑자기 급발하는 까닭으로 급치해야 하는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필자의 진료상 수는 극히 적었다.”¹⁰ 이는 현대 사회와 의료 환경에서의 차이가 컸던 1970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현대의 한방병원 내원환자 경향성과 비추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된다.

2. 환자의 체질병증 분포의 특징

1) 남녀별 병증 분포의 특징

소양인의 경우 전체와 여자에서는 음허오열증이 가장 많고 홍격열증이 가장 적었다. 소양인 남자는 망음증이 가장 많고 홍격열증이 가장 적어 소양인 내에서는 남녀의 병증 분포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소음인, 태음인의 경우 남녀의 병증 분포 비율이 유사하였다. 태음인은 전체 대상자와 남녀 모두 위완한증이 가장 많고 음혈모갈증이 가장 적었고, 소음인은 전체 대상자와 남녀 모두에게서 태음증이 가장 많고 소음증이 가장 적었다.

2) 체질별 병증 분포의 특징

소음인의 경우 태음증이 가장 많고, 소음증이 가장 적었다. 동무공은 울광증과 태음증은 경증, 중증이 있고 망양증과 소음증은 힘증과 위증이 있다고 하였다.¹ 망양증과 소음증처럼 병세가 위중해지기 쉬운 환자는 주로 서양의학을 위주로 치료를 시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한 소음인의 경우 역증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태음인의 경우 표역증인 위완한증의 비율이 체질 내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리순증인 간조열증이 많았으며, 남녀의 비율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소양인의 경우 여성 대상자들에서 리역증인 음허

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17-1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北道山谷一縣萬人數大略論之 則少陽人 五千人也 太陰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以南中原野一縣萬人數大略論之 則少陽太陰人 各四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亦絕少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오열증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체질의 리역증, 즉 소음인의 소음증, 태음인의 음혈모갈의 수가 가장 적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냉증이나 피로 등으로 인해 한방치료를 원하는 여성 소양인의 경우 체질의 특성상 만성 소모성, 에너지 고갈 상태인 음허오열의 병증으로 진행되기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체질 처방 분석

본 연구는 대상 환자에게 발행된 체질 처방을 바탕으로 병증을 분석하였고, 발행된 모든 체질 처방에 대해 그 빈도와 실사용 첩수를 조사해 보았다.

태양인 표병 외감요척병에 사용된 처방은 오가피장척탕이었고, 태양인 이병 내측소장병에 사용된 처방은 미후등식장탕이었다. 태양인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처방의 사용 빈도가 매우 적었다.

소양인의 경우 표병증 소양상풍에 사용된 처방은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이었고, 소양인의 표병증 망음에 사용된 처방은 형방사백산, 형방지황탕, 저령차전자탕, 활석오삼탕이었다. 소양인의 이병증 흉격열증에 사용된 처방은 양독백호탕, 양격산화탕, 지황백호탕이었고, 소양인의 이병증 음허오열증에 사용된 처방은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숙지황오삼탕, 육미지황탕이었다. 이 중에서 독활지황탕 632건(15140첩), 형방사백산 446건(9483첩), 형방패독산 209(4621첩)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독활지황탕의 면역력개선 항노화¹¹, 형방패독산의 면역력개선 항노화¹¹ 소염¹², 형방사백산의 갱년기 질환¹³ 등에 관련된 보고들이 있다.

태음인 표병증 배추표병에 사용된 처방은 한달열소탕, 마황발표탕이었고, 태음인 표병증 위완한증에 사용된 처방은 조위승청탕, 태음조위탕, 조리폐원탕, 마황정통탕, 마황정천탕, 갈근나복자탕, 건울제조탕, 녹용대보탕이었다. 태음인 이병증 간열증에 사용된 처방은 청심연자탕, 열다한소탕, 갈근해기탕, 청심열다탕, 청폐사간탕이었고, 태음인 이병증 음혈모갈증에 사용된 처방은 녹용대보탕이었다. 이 중에서 조위승청탕 856건(21695첩) 조리폐원탕 325건(7777첩) 갈근해기

탕 317건(7159첩) 청심연자탕 254건(4415첩) 한달열소탕 138건(3181첩) 태음조위탕 103건(2406첩)이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들은 임상에서 다빈도로 쓰이는 처방들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보고로는 태음조위탕은 당과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¹⁴, 청심연자탕의 항산화 및 면역조절효과¹⁵ 등이 연구된 바 있다. 조위승청탕은 임상에서 비만 치료^{16,17}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위점막 손상 방어¹⁸, 항우울효과¹⁹, 인지 능력 향상²⁰ 및 두뇌 회복²¹ 등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음인의 표병증 울광에 사용된 처방은 팔물근자탕, 궁귀향소산, 천궁계지탕이었다. 소음인의 표병증 망양에 사용된 처방은 승양익기탕, 보중익기탕, 황기계지, 승양익기부자탕이었다.

소음인의 이병증 태음에 사용된 처방은 향사육군자탕, 광향정기산, 거풍탕, 백하오이중탕, 적백하오관중탕, 향사양위탕, 소자도담탕, 십이미관중탕, 계지반하생강탕, 성향정기산, 백하오부자이중탕이었고, 소음인의 이병증 소음에 사용된 처방은 궁귀중소이중탕, 계부곽진이중탕, 관계부자이중탕이었다. 이 중에서 거풍탕 630건(16730첩) 향사육군자탕 604건(14221첩) 광향정기산 267건(6457첩) 적백하오관중탕 192건(4848첩) 향사양위탕 140건(3553첩) 등이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 향사양위탕은 항산화²² 및 소화기계²³에 대한 효과가 알려져 있고, 광향정기산은 항산화²⁴, 혈액순환개선²⁵, 소아비만²⁶ 및 만성 설사²⁷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향사육군자탕은 복통²⁸과 위장질환^{29,30}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전체 빈용 처방 상위 10위는 각각 조위승청탕, 거풍탕, 독활지황탕, 향사육군자탕, 형방사백산, 조리폐원탕, 갈근해기탕, 광향정기산, 청심연자탕, 형방패독산이다. 이 중 조위승청탕이 처방 건수 및 실제 사용첩수 모두 가장 많았다. 사상인의 분포에서는 소음인의 태음증이 많았지만 이에 속하는 빈용 처방도 다양하였다. 반면 태음인의 경우 빈용 처방의 분포가 위완한증의 7가지 처방 중 조위승청탕과 조리폐원탕 2가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조위승청탕이 가장 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분석은 2년 동안에 체질 첩약 처방을 받은 전체 환자 135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는 외래 내원 횟수가 한 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 되어 있다. 이에 최소 60첩 이상을 처방 받아 약리반응을 확인한 480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체질 병증 분석을 시행하여 상기 결과와 비교한 결과 유사한 분포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게 적용된 처방을 분석하여 병증을 분석하였지만, 실제 임상에서 한가지 처방은 다양한 증상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양인에게 음허오열증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경우는 결국 소양인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숙지황고삼탕, 육미지황탕을 사용하면 모두 음허오열증이라고 분석하게 되지만 실제 임상에서 독활지황탕은 식체비만증, 유평, 만성피로, 구안와사초기, 만성복통 등 여러 증상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활지황탕을 음허오열증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음허오열이라고 하는 背寒而嘔 每日午後 惡寒發熱 微寒而解 라는 증상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환자의 주소증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후에 처방과 관련하여 사상병증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냉증을 주소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군이 포함되어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가 한국인의 사상인 분포 및 병증 분포를 대표한다기 보다는 2년간 1354명을 대상으로 단일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의 내원 환자군 체질 병증의 경향성을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임상 결과를 자료화하여 공유하고, 비교하며 토론해 나가는 것은 향후 체질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자 1354명 중 남자가 562명(41.5%)이었고, 여자가 792명(58.5%)이었다. 사상인 분포는 소음인 614명(45.3%), 소양인 369명(27.3%), 태음인 364명(26.9%)이었다.
2. 체질별로 병증의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소양인 체질에서는 전체와 여자에게서 음허오열이 많고 남자에게서는 망음증이 많아 차이를 보였으며, 세 그룹 모두에서 가장 적은 병증은 흥격열증으로 일치하였다. 태음인 전체와 남녀 모두에서 위완한증이 가장 많고, 음혈모갈증이 가장 적었다. 소음인 전체와 남녀 모두에서 태음증이 가장 많고 소음증이 가장 적었다.
3. 모든 체질병증 14가지를 비교해 보면 전체와 남녀 모두에서 소음인 태음증이 가장 높게 나왔고, 소음인 소음증이 가장 낮게 나왔다.
4. 리증이 순증보다 많았고, 순증이 역증보다 많았다.
5. 기간 내에 발행된 처방들을 분석하였을 때, 다빈도 처방 상위 3가지는 조위승청탕, 거풍탕, 독활지황탕이며, 실제 사용된 첩수를 합산하였을 때도 동일하였다.

VI. 참고문헌

1.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colleges of oriental med. in Korea(compilation). The revised and enlarged Sasang Constitutional Med. 2nd ed. Seoul: Jipmoondang. 2008.(Korean)
2. Kim JY, Kim HG.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istributional of Sasang Constitutions in Iksan Wonkwang Oriental Medicine. J Koren Oriental Medicine. 2003;24(3):118-129.(Korean)
3. Lee TG, Hwang MW, Han TI, Lee SK, Choi BK, Koh BH et al. A study on the distributional Rate of Sasangin in Korea.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3):12-21. (Korean)
4. Kim YH, Kim SH, Jang HS, Lee JH, Lee EJ, Koh BH. The Study o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aeumin Deficiency of Yin and Blood Symptomatic Patte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85-98.(Korean)

5. Cho MS, Kho BH, Song IB. A Clinical Study of the Obesity Patient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8;10(2):485-511. (Korean)
6. Lee JM, Kim DR. Dongyisusebowon Gabogubon. Mokkwato. 2002.(Korean)
7. Yang SM, Yoo JS, Koh SB, Park JK. Association between Risk Factors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Wonju Cohort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 186-196.(Korean)
8. Shin MR, Kim DR, Yoo JS. A Study on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Adults Using Phonetic System for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75-88.(Korean)
9. Park GS., Lee JH, Lee SK, Lee EJ, Kim D, Song IB, Koh BH . The Study on the Actual Nutrient Intake Based on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188-205.(Korean)
10. Lee JM, Park SU. Dongyisasangdaejun. Yidohankuksa. 1997:614
11. Lee SY, Ahn TW. Effects of Hyuongbangpaedok-sak and Dokhwajihwang-tang that get weight, hematology, Biochemistry Change by Wistar Rat's Aging.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3):91-102.(Korean)
12. Han DY, Shim GH, Kim JR, Kim DR. A clinical study of the treatment prescribed Hyoungbangpaedoksan for Aspiration Pneumonia concurred in Soyangin with stroke.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2):76-83. (Korean)
13. Kim KS, Lee SY, Cha JD, Kim EY, Kim KS, Kwak CK et al. A Case Report of Climacteric Woman Improved with Soyangin Hyeongbangsabaeksan.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3):118-123.(Korean)
14. Hsiao. MH, Ko SG, Jun CY, Park JH, Choi YK. Effects of Taumjowe-tang-gagambang on the Glycometabolism and Lipidmetabolism in the Liver Tissue of Diet-induced Obesity Mic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24(4):638-645.(Korean)
15. Lim JP, Ahn TW. The Anti-oxidative and Immune-regulatory Effect of Chungsimyeonja-tang in Aged Rat.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 227-241.(Korean)
16. Lee JE, Kim BW, Rhim TJ, Kim DH, Kwon KR. Effects of Chowiseungcheng-tang Extracts on the Preadipocytes Proliferation in 3T3-L1 cell line, Lipolysis of Adipocytes in rat, and Localized Fat Accumulation by extraction methods. J of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2008;11(1):127-141.(Korean)
17. Kwon MW, Kim IH, Park EJ, Kang BG. The Clinical Study on 66 cases of Obese Patient Treated by Kamijowisengchungtang and acupuncture.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01;15(2):43-51.(Korean)
18. Han JS, Park SS. Study for defensive effect of Jowiseungcheong-tang on gastric mucosal damage in mice.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1):100-111. (Korean)
19. Rhu JM, Hwang UW, Kim JW, Chi SE, Kim EJ, Park EH. The effects of Jowiseungchungtang versus fluoxetine in the chronic mild stress model of depression in rats.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4;15(1):27-41. (Korean)
20. Cho SH, Kim JW, Kim HT, Chung KC, Hwang UW. A Study of Jowiseungchungtang in patients with mild Dementia of Alzheimer type.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3;14(1):17-26.(Korean)
21. Song SY, Kim HS, Kim KY, Ko GD, Kim IH. Effects of Jowiseungcheongtang water extract on Cultured Primary Hippocampal Cell Culture Damaged by XO/HX.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1): 67-78.(Korean)
22. Choi BC, Ahn TW. Anti-oxidant Effect of Hyangsayangyi-tang Decoction in Stomach, Spleen and Pancreas Cell of SD Rat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72-84.(Korean)
23. Hong ND, Jang IG, Kim NJ. Studies on the Efficacy of Combined Preparations of Crude Drug(XXXIX): Effects of Hyangsayangwee-Tang on the Stomach and Intestinal Disorder. Kor J. Pharmacogn. 1989;20(3): 188-195.(Korean)
24. Lee HS, Yin CS, Koh HG. Protective Effect of Gwakyangjeonggisang Herbal Acupuncture Solution in

- Glioblastoma Cells: Microarray Analysis of Gene Expression. J of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2005;8(3):55-69.(Korean)
25. Koo CM, Sun JK, Kim HH, Nam CG. Effects of GwakHyangJungGiSan on the Arterial Contraction in Rabbit. J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03;24(2):260-268.(Korean)
26. Shin DG, Kim DG, Lee JY. A Clinical Study on the Effects of Gwakhyangjunggi-san gamibag on 9 Obese Children. J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01;15(1): 183-194.(Korean)
27. Kim GB, Han IS, Sim YS, Kim EG, Han JH. A Clinical Report of Chronic Diarrhea Treated with GwakHyang JungGiSan. J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05;26(4):889-896.(Korean)
28. Jung MS, Lyu, Lee SY. Effects of the HyangsayukgunjatangGamibang on Children with Abdominal Pain. J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07;21(3):57-69.(Korean)
29. Kong KH, Baik TH. The Effects of Hyangsayukgunjatang Extract on Indomethacin-Induced Gastric Mucosal Lesions. J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01;22(4):589-599.(Korean)
30. Han HH, Byun JS. Effects of Hyangsayukgunjatang and Hyangsayukgunjatang-ga-kyenegum, moryobun on experimental gastric ulcers in rats. The Korean J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1998;6(1):157-173.(Korean)